

## ■ 괴운(槐雲) 칼럼



## 칠불교(七不交)와 구불약(九不藥)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 복야공파 36세)

홍콩에 이가성(李嘉誠)이라는 부호가 살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그리고 아시아에선 최고의 부자다. 현재 개인 재산이 약 30조원 인데 세탁소 접원으로 시작해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 게 첫 번째 배울 점이고, 지금도 5만원 이하의 구두와 10만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를 타면서 겸소하다는 게 두 번째 배울 점이며, 그 절약한 돈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게 세 번째 배울 점이다.

그의 어록 중 고우(交友) 관계에 관한 '육불합 칠불교(六不舍 七不交)'란 유명한 말이 있다. 여섯 종류의 사람과 동업하지 말고, 일곱 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이다. 먼저 육불합(六不舍)이다. 1.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2.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3.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4.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5.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6.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다음은 칠불교(七不交)이다. 1.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2.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3. 시시콜콜 짜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4. 반기만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5.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6.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 사귀지 마라. 7.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는 30여 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떠날 때가 되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기 위해 200만 위엔(3억 6천만원)의 수표를 건넸다. 그랬더니 운전기사는 필요 없다고 사양하며, "저도 이천만 위엔(36억원) 정도는 모아 놓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회장은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월급이 5~6천위엔(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해 놓았지?" 운전기는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을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 놓았고요.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 지금 자산이 이천만 위엔(36억) 이상에 이르고 있지요."

인생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

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노닐 게 될 것이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다음은 구불약(九不藥)이다. 중국 당나라 때 송청(宋清)이란 한의사가 살았다. 그는 많은 환자를 치료하여 큰 명성과 부를 얻었다. 하루는 가난한 의원이 송청을 찾아와서 물었다. 이토록 많은 환자가 찾아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굳이 나에게 비결이 있다면 구불약(九不藥) 더 분입니다. 아홉 개의 불(不)을 치유해주는 신비로운 약입니다. 송청은 차례로 설명하였다.

1.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해주고(불신, 不信)

2.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며(불안, 不安)

3. 나에게 암시를 풀지 않게 해주고(불양, 不快)

4. 내 마음이 끝나는 사실을 알려주며(불구, 不勾)

5. 내가 약값을 속이지 않음을 믿게 해 주고(불치, 不值)

6. 나와 상대방의 거리감을 없애주며(불의, 不倚)

7. 내가 성의가 없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고(불충, 不衷)

8. 내가 공손하지 않다는 불쾌감을 없애주며(불경, 不敬)

9. 내 언행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 줍니다.(불규, 不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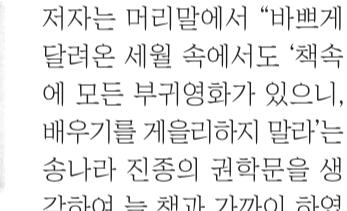
설명이 끝나자 의원이 송청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고연 명약이군요. 그토록 신통방통한 약이라면 엄청나게 비싸겠군요?" 이런 약재로 지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의원의 눈이 휙둥그레졌다. 송청은 한바탕 깔깔 웃고 나서 대답했다. "잘 들어주세요.

만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구불약(九不藥)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웃은 웃음꽃이요. 가장 아름다운 별이는 혈별이요. 웃음은 위로 올라가 즐거워되는 성질을 가졌지만 슬픔은 밑으로 가라앉는 앙금으로 남는다.

그래서 기쁨보다 슬픔은 오래오래 간직되는 성질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부른다.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웃음이다.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스트레스로 짜증내지 말고 웃음으로 만복래(萬福來)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의 칠불교(七不交)와 구불약(九不藥)은 오늘날 협한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안동권문 독자들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책

## 권해조 칼럼 선집

/권해조

권해조 본보 편집위원이 팔순을 맞이하여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경남 합천 대병면 성리 죽전에서 큰 유학자인 설암 권옥현 선생의 4남으로 1943년 태어나, 육사(24기)를 나와 1968년 포병장교로 임관해 월남전에 파병되고, 포병대대장·포병연대장을 거쳐 한미연합사 정책운영처장을 지내며 무인의 길을 걸었다. 1998년 장군으로 전역 후에는 초빙교수와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안동권씨 종보 등 다수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는 문인의 길을 걷고 있다. 문무를 겸진한 장군이다.

다고 술회한다. 저자의 글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 수필가로서 서간문, 기행문 등 저자가 포착한 다양한 주제에 자신의 삶과 경험이 녹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문예춘추>(2009년 여름호)로 등단했으며, 26회 허균문학상 수필부문 금상(2012), 담쟁이문학상(수필부문, 2021)을 수상했으며, 수필집으로는 <매봉산의 메아리>, <화나무 그늘의 노병> 등이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5차)

서울산악회 정기산행과 제2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19일(일) 10시

♣ 장 소 :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1번 출구

♣ 산행지 : 천장산(의릉)

♣ 준비물 : 간식 및 개인 필요 장비

♣ 식 당 : 동대문구 이문동 264-407(그집)

☎ 010-9171-3110

♣ 찾아오는 길 : 외대역 2번 출구 도보 5분(경희대학교 후문 앞)

회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2년 6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 생활속의 한방건강



## 긍정에너지와 건강 ⑦

## 11. 긍정적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진실한 사람이고, 이를 유지하거나 더 성장 및 발전시켜 가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한결같이 더 나아가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최근에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 중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5행에 견주어 그 특성을 말씀드린다.

## 1) 아름다움의 어원

아름다움은 '아름'과 '다움'으로 결합된 글자이다. 이 말의 기본형을 '아름답다'인데, 아름이라는 뜻은 다양하다. '알음'이라는 말은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읽 또는 지식을 뜻하는데, '아름'으로 연음되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가을에 밤송이가 무르익어 가을에 떨어진 상태를 '아름'이라고 하는데, 이 아름에서 떨어진 밤알을 '알밤'이라고 한다. 알밤은 '알맹이 밤'으로 속이 비워있는 '쭉정이 밤'과는 대조적이다.

'알밤'에서 쓰이는 '알'은, 동물의 알과 같이 생명을 임태할 수 있는 '꽉 찬 또는 실실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핵심은 '알찬', '알맹이'의 '알'의 어근과 '알고 있음'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양팔을 사용하여 물품을 크게 안았을 때, 한 아름이라는 표현을 쓴다. 영어의 팔을 뜻하는 암(arm)과도 연관 맥이 통하는 작각을 해본다.

## 2) 아름다움의 근간은 균형과 조화

알맹이가 균형과 조화가 있는 현상이나 상태를 이루면,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알맹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균형과 조화에 있다.

균형(balance)은 어떤 모양을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요소들이 각자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여, 그 모양이 안정되어 유지되는 상태이다. 물리적 관점에서의 균형은 그 요소의 길이, 굵기, 무게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이 형성하는 물체의 중심점에서 그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낸 안정적 결과이다.

조화(harmony)는 모양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잘 어울려 모순되거나 어긋남이 없음을 말한다. 균형이 물체나 현상의 내부적 기능을, 조화는 외형적 상태를 말한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마음 등으로 생활에서 쓰이고 있고, 그것을 시각, 청각, 심안(心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좋은 맛과 냄새 및 촉각도 인공지능(AI)을 통해 그림으로 표현되면서, 아름다운 맛, 내음,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아름다운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알찬사람으로, 그의 내

권희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면적인 성향과 역할에 균형을 가지고 있어, 외형적으로 조화로움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의 생각과 역할은 주변으로 확대되어 그 조화로움도 확장된다.

긍정적인 사람은 우선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여,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 자신이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환경을 파악하여, 그 자신이 그것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 (1) 적극성을 지니고 있다.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발전시키려고 비교적 최선을 다한다. 그 최선의 마음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그 행동이 조용하다 할지라도, 봄의 나무처럼 꽂임없이 자라나고 있다. 봄바람에 나뭇가지처럼 흔들리지만, 그것은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과 발전의 몸짓이다.

## (2) 따뜻함이 배어있다.

아름다운 사람은 따뜻함이 배어 있다. 그 어투와 몸짓이 따뜻하다.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은 따스함이다.

생명을 임태하고,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는 원동력은 열기가 있는 봄과 같이 따뜻한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나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마음과 행동을 낳는다. 이 에너지가 여름의 태양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한다.

배려와 양보의 끝판왕은 안도현 시인의 시처럼, 나도 한 번 정도는 "누구를 위하여 뜨거워 본 적"이 있는 인생이 아닐까 싶다.

## (3) 균형감각이 있다.

균형감각은 여러 요소들의 중심점이고, 균형감각은 이러한 요소들의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감각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이러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 마음과 몸의 중심을 잘 유지하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계절과 계절사이에 있는 밤과 낮의 온도차는 우리 신체의 조절을 통해 항상성을 키워내는 면역력 단련의 시간이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일정한 성향을 의미하지만, 그 본질은 차이를 조절하여 신신을 강건하게 하는 면역력이다.

## (4) 규칙적인 리듬이 있다.

아름다운 사람의 긍정적 행동은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긍정적 리듬의 행동이다. 규칙은 절제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에서 오고, 이는 풀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결실을 만들어 준다.

## (5) 자기성찰을 한다.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성찰을 잘한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 겨울나무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봄, 여름, 가을의 행적을 기억에 담고, 새로운 봄맞이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 ■ 이달의 시

## 나그네

/권명오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천상의 무대

태양과 구름들  
바람 따라 춤을 추는  
곡예의 전시장

생동하는 천공의 예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내일은 어떻게 다를지  
알 갈 없는 너와 나  
미련의 나그네들

권명오 작가는 시인자 칼럼니스트이며 수필가이다. 애틀랜타 한국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미주한인의 날 자랑스런 한인상과 국제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권명오 칼럼집」(Q형 1,2집)이 있다.

## 서울 마포종친회 야유회 안내

회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야